배부르면 사명, 배고프면 사냥

(느헤미야 7:1~73)

1.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배부르면 사명, 배고프면 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배부르면 사명, 배고프면 사냥'
사명과 사냥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이 사명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아닌 삶은 단순히 일상적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반드시 사냥이 됩니다. 먹이를 찾는 들짐승들의 사냥의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을 합니다. 혹은 '배부른 생각이다 / 그런 행동은 배부른 행동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는 얼마든지 감지덕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고민을 할 때에 그것을 비꼬며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셋방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앞에서 부모님이 사주신 30평짜리 집이 작다고 불평을 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방에서 시작한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자면 배부른 소리를 하는 셈입니다. 누구는 15평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시작하고 있는데, 부모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는데도 작다고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꿈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앞에서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보너스가 적다고 불평을 한다면 비정규직인 친구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수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 앞에서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가고 연대에 들어갔다고 동서가 불평을 합니다. 이것도 배부른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부른 소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를 하는 당사자보다 못한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배부른 소리가 되지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타인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때에 배부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배부른 소리란 내 형편이 당신의 형편만큼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바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자신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배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비난조로 말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배고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야 한다고 불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의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정말로 마음의 배가 불러서 배부른 소리를 하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전혀 배부를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는 도저히 배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데 당사자는 정말로 배가 부르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은 특별한 종교적 직책을 부여받아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등의 일반적인 삶이 사명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반면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된다면 사냥의 삶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들짐승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배부르면 사명, 배고프면 사냥'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사명이 될 때에 자유함이 있고 결실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사명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삶이 아닌 사냥이 된다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고, 언제나 경계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스트레스의 중압감이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결실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부른 상태에서의 삶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며 결실을 경험하며 찬송이 가득 찬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냥의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의 중압감에 눌리고 경쟁과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지고 문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낙성식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낙성식은 12장에서 나오고 느헤미야는 그에 앞서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성을 방비하기 어려

웠습니다. 그래서 성의 방비를 맡을 책임자를 선정함과 아울러 성 밖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하기 위해 1차 포로귀환자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73절까지의 명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 인구재정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1차 포로들이 귀환해서 유대 땅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는 이주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2차 3차 귀환자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기간적으로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계보와 명단은 명확했을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을 추려내고 성을 방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추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명의 삶을 살 것인지 사냥의 삶으로 살 것인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합니다.

1절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본래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왜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지키는 자들로 삼았던 것일까요? 또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뛰어난 능력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생활하는 백성의 삶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레위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의 사명의 연장선에서 예루살렘 성안에서의 삶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밥 먹고 옷 입고 나가서 밭 갈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 삶은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동일한 사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일반적이지만 사명적인 삶이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역의 성문은 해가 뜸과 동시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성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관행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고서야 성문을 열게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라는 말은 정오는 아니지만 아침시간은 훨씬 지난 오전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6~7시쯤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그때쯤에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성문을 여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하루의 일과가 시작됨을 뜻하는데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히 성벽을 지킬 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길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단 마음의 배부름을 위한 식사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상번제가 드려지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상번제를 기억하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켜지는 것은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을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필요한 일과를 손에 잡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상번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밭을 잘 갈아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될 나를 상번제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은 밭의 소출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밭의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까지 기도를 위해서 성문을 여는 시간을 길게 잡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밭을 갈고 장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가까워질 때까지 상번제의 연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배부르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거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정오에 가까워졌을 때에야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밭에 가서도 소출로 배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밭가는 일도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으로 배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명이 됩니다. 내가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을 때에 사명이 됩니다. 내조와 외조가 모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없이 만나는 배우자는 내 마음의 배고픔을 채울 먹잇감이

됩니다.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 와서 내 배를 채워줘야 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어서 내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배우자는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도 하고 손자도 낳아서 나를 배불리는 먹잇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삶에는 평안이나 자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상번제의 의미를 완성시킨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숫자적 목회나 큰 예배당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죄악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느덧 배가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로 만족을 누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본성상 원죄의 체질로 인해서 세상 것을 원하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하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배부를 때에 교인을 심방하면 사명이 되고 설교하면 사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배가 고픈 채로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설교는 짐승의 먹잇감 사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게 하고 교회의 조직에 몰입하게 하려는 것은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안 하든지 예배당이 초가삼간이든지 고대광실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사명으로 할 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상적 삶을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상번제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문제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늘 하루 일과가 시작 될 때에 짧게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육체 연관성의 현장에서 내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늘에만 있고 배부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때에 사명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로 배부름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결실이 넘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배가 고파서 하는 일마다 사냥이 되는 비극적 삶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